

광주시립미술관 G&J갤러리 지역신진작가교류전 'Antifragile'

30일 까지 서울 인사동서 전시... 회화·조각·설치 등 24여점

광주시립미술관 G&J갤러리는 계묘년을 맞이하여 2023 지역신진작가



▲강지수 '자유로운 여자 2022'

교류 기획전 'Antifragile'을 오는 30일 까지 서울 인사동 G&J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 타이틀인 'Antifragile'은 '깨지기 쉬운'이란 뜻을 가진 '프래질(Fragile)'의 반대 개념인 '안티프래질(Anti-fragile)'로 충격을 받으면 더 단단해진다는 의미의 나심 탈레브가 만든 경제학 용어에서 착안하였다.

이를 통해 연약하지만 단단한 '기억'의 양가적 형질을 주제로 작가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기억의 단상에 대해 다양한 매체와 형식의 작품을 통해 현재 사회의 모습들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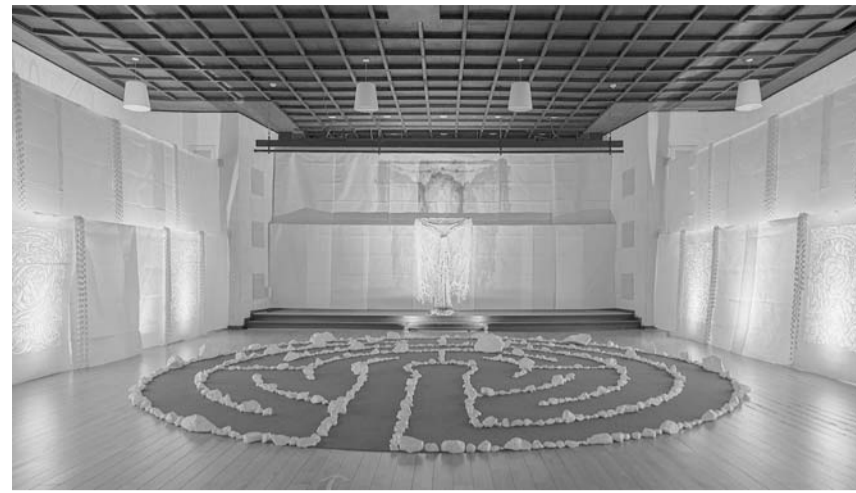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기억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답을

찾기도 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토대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도 한다. 이렇듯 연약하지만 단단한 힘을 지니고 있는 개인적 이면서도 사회적 기억을 다양한 각도로 현대미술의 모습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억을 통해 펜데믹 상황으로 단절의 시간을 겪은 여러 세대들에게 세상을 연결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참여작가는 광주 지역신진작가 강수지·이하영, 김소희, 이소희, 강지수 5명(1팀, 개인 3명)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신진작가 신상은, 이은경 2명으로 구성됐다.

강수지·이하영은 연민의 마음으로 주변으로 밀려나고 배제된 존재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시도



▲강수지&이하영 '사랑사원 2022'

로 사랑 사원을 만들어낸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김소희는 버티기 급급했던 시절의 기억 속 나를 이해하고 묵묵히 위로하는 회화작품을 보여준다.

이소희는 흐르는 시간을 나의 기억 속 장면과 비교하여 포착해낸다.

강지수는 엄마와 함께 바라보았던 노을에서 엄마를 떠올리며 역지로 붙잡고 있었던 기억을 정리하는 회화를 선보인다.

신상은 행복했던 여행지에서 기억을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기 위해 순간을 기록한다.

이은경은 완성된 유리의 모습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유리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의 상태를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각 작업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광주지역의 신진작가들이 기획전시 참여를 통해 중앙 무대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예술계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과 광주 지역작가 교류의 일환으로 타 지역 작가와의 소통의 기회를 통한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 /주성초 기자

광양, 올해의 책 시민 투표 25일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광양시립도서관이 시민이 즐겨 읽을 수 있는 '2023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11~25일 온·오프라인에서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범시민 독서 운동인 '시민 한 책 읽기'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민, 사서, 출판사, 학교, 기관으로부터 도서를 추천받고, 12월에는 추천받은 도서를 대상으로 1차 심의를 열어 분야별(어린이, 청소년, 성인) 후보 도서를 2권씩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 도서는 ▲어린이 분야에 '거짓말의 색깔'(김화요)과 '모두 웃는 장례식'(홍민정) ▲청소년 분야에는 '꿈에서 만나'(조우리), '출출'(문경민) ▲성인 분야는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황보름) 등 모두 여섯 권이다.

2023년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시민투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시립도서관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각 도서관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QR코드에 접속한 후 후보 도서 중 분야별 한 권씩 총 세 권의 도서에 투표하면 된다.

현장 투표는 시립도서관(중앙·중마·희망·용강·금호 도서관 5개소)에 설치된 투표함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은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2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광양·조순의 기자



2023 올해의 책

시민투표 기간: 11월 11일 ~ 11월 25일

투표 방법: 온라인(누리집,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 현장(도서관 투표함)

문의: 02-2022-1111 / 02-2022-1112

신청서: <https://naaform.com/g/581jkd>

문의: 광양시립도서관(010-7171-0853)

시민 투표하기

참여한 20명에게 기프티콘 증정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시민투표하기

순천 낙안읍성 '벚꽃 이영 엮기' 보러오세요

오는 13일까지 낙안읍성보존회 회원 모여 이영 엮기



순천시는 순천 낙안읍성보존회 전통기술보유 회원들이 모여 이영을 엮고 있다. 이번 이영은 올 9월부터 낙안읍성 초가지붕 교체용으로 사용할 재료로 낙안읍성 객사 뒤편에서 오는 13일까지 이영을 엮는다.

이영은 벚꽃을 한 움큼씩 손에 잡고 모아 짚으로 엮어나가면서 두루마리가 되게 만든다. 하단 부분에 가지런히 엮어 새겨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탄성을 자닌다.

사적 302호 낙안읍성은 100여 가구 300여 동에 달하는 초가지집이 있다. 추수가 끝난 후 초가지집 지붕에 이영을 엮어 덮는 일은 읍성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요즘은 초가지붕을 올리는 짚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쓰러짐 방지를 위해 길이가 짧은 품종을 선호하고 트랙터로 벼 수확을 하기 때문이다. 낙안읍성 주민들은 초가지붕에 활용할 긴 짚더미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새청무벼', '신동진벼'를 재배한다. 수확 후 벚단을 뜨거운 태양 아래 널어 건조하고 말리는 등 신경 써서 관리한다.

전북 정읍에서 낙안읍성을 찾은 최씨는 "잊혀가는 이영 엮는 모습을 보고 옛 추억을 꺼내 자녀들과 이야기했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모습을 계승하며 거주하고 있는 낙안읍성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낙안읍성은 초가 이영 전통기능인들이 70~80대의 고령으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향토화교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시대 초가 이영 엮기, 날개 엮기, 용마름 만들기 등 전문 인력 양성과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낙안읍성의 초가지붕 이영 엮기 작업은 조선시대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전통문화유산이다."라며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3년 연속 공립박물관 평가인증기관 선정

오는 2025년 12월까지 인증기관 자격 유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지난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고려청자박물관이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25년 12월까지 인증기관 자격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17년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3년마다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설립 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을 포함한 5개 범주와 18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지난 1986년 고려청자사업소로 출발해 1997년 고려청자 유물과 재현작품을 동시에 전시함으로써 박물관의 기능을 시작했다.

그 후 2006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매년 새로운 주제의 특별전과 심포지엄을 비롯한 박물관 고유 기능에 더해,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고, 박물관 교육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문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평가대상 기간이 코로나19가 극심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전, 온라인 가상박물관 구축, 학교 방문교육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셀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해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미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 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